

시니어 순모임(2월)

인도: 순장
대표기도: 말은이

찬 양 _____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_____ 다같이

대표기도 _____ 말은이

감사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한 달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내용을 나누어 봅니다)

기도제목 나누기 _____ 다같이
(본인의 기도제목을 한 가지씩 나누어 봅니다)

말씀 나누기 _____ 말은이

합심기도 _____ 다같이
1. 피아노키 개발을 통해 온 성도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준비부터 완공까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2. 2024년 임직자 선출이 주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광 고 _____ 말은이

주기도문 _____ 다같이

알려드립니다.

- 1. 피아노키 개발이 올 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건축되도록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 2. “시니어 영성 시리즈” 특강이 2월 25일 주일 오후 12시 시니어 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F. J. Crosby 사 P. P. Knapp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 온전히 주께 맡긴내 영 사랑의 음성 듣는 중에
 3. 주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이세상에서 내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내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자의 아이덴티티

요한복음 8:31-36절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세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며 13장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장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은 교회 직분이나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세가지의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제자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가 즉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서 시작합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율법에 갇힌 사람들, 종교 생활 자체를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종교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 봉사와 헌신을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아이덴티티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 매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변화를 체험하고 있는가? 진정한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종교생활을 끝내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두번째 삶의 기준이 자신인가? 예수님의 말씀인가?
제자가 되는 첫 단추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 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머무는 삶”** 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며 삶의 기준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하루를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설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책망받는 유대인들의 근본 문제라 무엇일까요?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생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담의 타락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는 지배당하는 종인가? 해방된 자유인인가?

31절과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를 받을 때,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 때문이 아니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가장 위대한 자유인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세상의 모두에게 예속되는 노예입니다.